

박대통령 오늘 신년기자회견...靑 쇠신 밝힐까

초유의 '항명 사태' 파문확산 막기 대책회의 등 분주

김영한 민정수석 면직... 처리 놓고 여야 대립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앞두고 청와대 대승승하고 근혹스런 주말과 휴일을 보냈다.

지난 10일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돌발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초유의 '항명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김 수석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출석지시를 거부한 채 사퇴, 정국에 메가톤급 파문을 불러일으키며 따라 정치적 파문 확산을 막기 위한 사태수습에 나선 것. 특히 이번 항명파동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청와대 보좌진은 휴일인 11일 까지 대책회의를 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특히 김 수석이 곧바로 제출한 사표를 검토한 뒤 서류를 작성해 박 대통령에게 바로 올렸으며 박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면직 처리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밖에도 언론 보도의 방향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각종 보고를 받고 총일 수습책을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수석의 면직 처리에 대해 여당은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야당은 "특검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반발하는

등 여야의 반응은 갈리면서 파문은 이어졌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청와대가 조직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본다"며 "박 대통령이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민정수석의 항명은 청와대 시스템의 붕괴를 드러낸 것"이라며 "청와대는 사표 수리 전 질책과 징계를 하고 민정수석을 해임했어야 하는데 조용히 사표를 수리했다니 대통령이 힘이 없는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청와대 인적 쇄신이 필요한 이유가 추가됐다"며 "특검 필요성도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국무위원은 파면·면

직·해임 등의 처분이 가능하지만, 수석비서관의 경우 면직만 가능한 정무직 공무원인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을 해임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는 의미인 셈이다.

한편,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춘추관에서 약 1시간30분간 진행되며, 박 대통령은 초반 15분 동안 경제 활성화와 한반도 통일준비 등 올해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한다. 이후 기자회견은 주요 현안 등에 관한 박 대통령과 기자들의 질의응답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따라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김 수석 사퇴 등에 관한 질문이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이 직접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이영철 예술감독 해촉

아문화개발원, 후임 조기 인선

아시아문화개발원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문화창조원 콘텐츠 구축을 맡고 있는 이영철 예술감독을 해촉했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지난 9일자로 이영철 문화창조원 예술감독에게 위촉 해지를 통보했다. 이 감독은 지난 2013년 6월 3년 임기의 예술감독으로 위촉돼 문화창조원 개관 콘텐츠(공연, 전시, 운용 프로그램) 구축업무를 맡아왔다. 문화창조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구성하는 5개원의 하나로, 문화예술 콘텐츠 창·제작, 전시 등을 맡고 있는 공간이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이 감독의 소속학교인 계열예술대에서 더 이상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없어 학교에 복귀해야 한다고 통보해오며 따라 이런 조치가 이뤄진 것 같다"고 전했다. 문화개발원은 이에 따라 학교업무와 창조원 예술감독을 겸직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겸직을 금하는 개발원 내부규정에 묶여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개발원은 이 감독의 노하우와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협의의를 거쳐 비상근 근무형태로 문화창조원의 일부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전당 개관(9월4일)을 불과 8개월 앞둔 시점에 예술감독을 해촉, 개관 콘텐츠 구축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 감독이 창조원 예술감독을 맡아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의 밑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이다. 이 감독이 개발원의 조치가 부당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문화개발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후임감독의 조기인선을 서두르며, 문화창조원 창·제작센터와 일부 전시공간 콘텐츠 구축 업무를 분리해 별도로 감독을 두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핵실험 언급 암묵적 위협"

美, 북 조건부 제의 거부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암묵적인 위협'이라고 비난했다.

한미 간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핵실험을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제의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인도를 방문할 예정인 존 케리 장관을 수행하는 쟈니 대변인은 "일상적인 한미 훈련을 핵실험 가능성과 부적절하게 연결하는 북한의 성명은 암묵적인 위협(implicit threat)"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새로운 (4차) 핵실험은 북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른 북한의 약속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북핵 6자회담 재개 등에 앞서 비핵화에 이를 수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조치를 통해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한 약속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종전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지난 9일 미국 측에 전달한 메시지에서 "미국이 올해에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임시 중지하는 것으로써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을 제기하고 이 경우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실험을 임시 중지하는 화답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11일 "북한의 핵실험은 수차례 걸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금지된 것으로서 북한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바, 이는 한미 연합훈련과 연계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주의와 평등과 자유를 위하여"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 등이 벌어졌던 프랑스에서 10일(현지시간) 총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한 테러 규탄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사진은 마르세유에서 시민들이 테러 규탄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는 모습으로, 앞쪽에 "민주주의와 평등과 자유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쓰인 플래카드가 보인다.

프랑스서 테러 규탄 70만명 시위

시민 17명·인질범 3명 사망

프랑스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파리 테러가 마무리된 다음날인 10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에서 대규모 테러 규탄 시위가 열렸다.

AFP통신은 프랑스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총 70만 명이 넘는 시민이 길거리로 나와 행진하면서 테러 희생자를 애도하고 테러를 규탄했다고 보도했다. 남부 툴루즈에 8만 명, 포 4만 명, 낭트 3만 명, 니스에서 2만3000 명이 침묵 행진을 벌였다.

11일(현지시간) 파리에서는 시민과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테러 규탄

시위가 열린다. 프랑스어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등 세계 34개국의 정상급 인사가 참가해 파리 시내에서 시민과 함께 행진을 펼친다.

한편 파리 언론사 테러 용의자인 쿠아지 형제가 인질을 붙잡은 파리 근교 담마르탱 인쇄공장에서 경찰에 사살됐다. 파리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을 시작으로 지난 7~9일 사흘간 파리 인피에서 벌어진 테러 '인질 사건'으로 시민 17명과 인질범 3명 등 총 20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테러로 언론활동 멈출수 없다"

한국신문협회 성명

한국신문협회는 프랑스 시사만평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제작진에 대한 무장 테러를 연관시켜 국내외 언론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협회는 "테러와 겁박이 언론활동을 멈출 수는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샤를리 에브도 제작진에 대한 테러는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로 우리는 인류사회와 함께 이를 규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언론을 상대로 한 테러는 그 방법을 불문하고 전 세계 언론인들과 언론활동을 겁박하며, '표현의 자유'라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반문명적 폭력"이라고 성토했다.

/연합뉴스

1636 결과 믿음소망 말하세요

NAVER 대리점모집센터 검색

2014 미스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글전화번호 1636

모든 상호·이름이 전화번호가 됩니다

한글 전화번호 1636은 1588, 1544, 1644 등과 같은 대표번호 서비스로 1636 뒤에는 업종, 상호명 등 모든말이 전화번호가 되는 차세대 음성인식 통신 서비스입니다. 1636전화번호 사용중인 상호를 말씀하시면 연결됩니다.

기본의 숫자번호 바꿀필요 없습니다

한글 전화번호 1636은 기존에 사용하던 숫자 번호에 한글번호를 커빙 하는 방식으로 1636을 통해 전화 걸면 기존에 설정해두신 숫자 번호로 자동 연결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전화번호를 해지하거나 바꿀필요 없이 한글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

1636 음성인식서비스는 애플 아이폰의 음성 인식 서비스시리를 개발하고 삼성전자의 SVO 이스 서비스에 기술력을 제공하는 세계 1위의 음성 인식 기술회사인 뉴왕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대리점, 에이전시(영업사원) 모집합니다 |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 '진심어린영이'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강선자들이(주)를피어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2015년 신입생 모집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과

홈페이지 www.suibe.co.kr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모집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

모집 기간 ▶ 2015년 2월 28일까지 (중국어 미학습자 신청가능)

모집 인원 ▶ 30명

수강 기간 ▶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 30시간, 총 720시간 이수)

강의 내용 ▶ 중국어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입학상담문의 GChina www.gochina.co.kr

233-9582 (중) 구오팔리